

김선빈, KIA 공수주 업그레이드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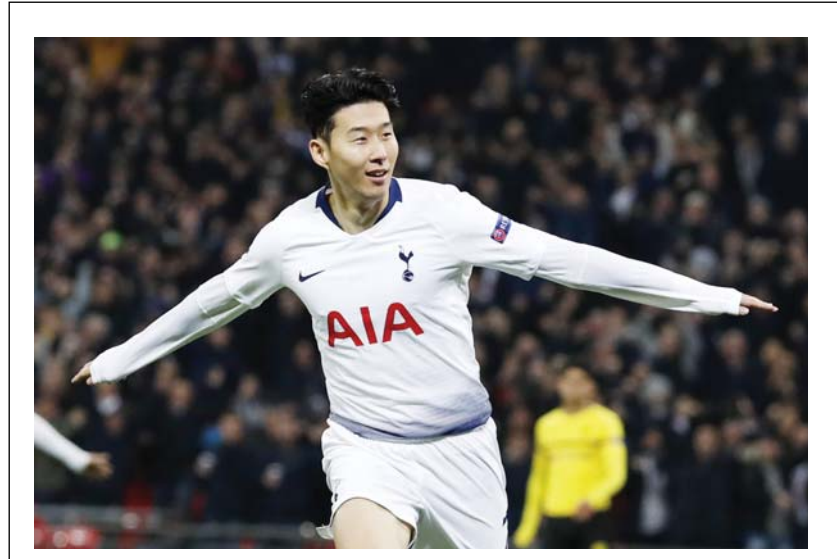
지난해 평균체중 79kg서 겨울 동안 7kg 감량
김기태 감독 “몸 가벼우니 수비 좋은 플레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이 주전 유격수 김선빈의 날렵해진 모습을 보고 반색하고 있다. 김선빈은 2018시즌을 마치고 체중감량에 들어갔다. 김선빈의 작년 평균 체중은 79kg였다. 165cm의 키를 감안하면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집적으로 발탁이 좋지 않았는데 체중까지 늘어나 더욱 부담이 컸다. 성적도 2017년 3월7푼 리딩히터에서 2월9푼5리로 떨어졌다. 모든 공격 수치가 하락했다. 발탁 수술을 받은 여파로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량이 적은 점도 있었다. 체중이 80kg 가까이 불어 유난히 몸놀림이 둔해 보였던 시즌이었다. 체중 부담에 상대의 집중 견제, 유격수까지 하느라 힘겨운 시즌이었다. 수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무래도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지면서 좌우 수비쪽이 좁아졌다. 뿐만 아니라 커버플레이, 병살플레이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실제로 지난 시즌 중 몇몇 전문가들이 KIA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팀 성적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 감독은 “유격수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 포지션이다. 만일 유격수가 지금보다 좌우로 1m를 더 커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수비 하나는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국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서 호수비의 하나가 전체 승부의 흐름도 바꾸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만난 김선빈은 누가보더라도 훌쩍해진 모습이 다. 그는 “겨울에 7kg를 했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운동선수 7kg 감량은 쉽지 않다. 먹을 것은 먹고 운동으로 빼야 한다. 그만큼 시즌을 마치고 운동만 했다고 볼 수 없다. 매일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도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김 감독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특히 김선빈의 타격은 연승경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오키나와 대의 연습 4경기에 모두 선발출전했

다. 그것도 유격수로 나서며 수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 두 타석만 소화하지만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주었다. 18일 히로시마전에서는 발빠른 1번타자 다나카 고스케의 3루간으로 빠지는 깊숙한 타구를 날랜 걸음으로 걷어내 빠른 송구로 잡았다. 3회에서는 무사 1루에서 깔끔한 병살플레이로 고희루키 김기훈에게 힘을 보탤다. 김기태 감독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몸이 가벼우니 수비에서 좋은 플레이를 나온다”면서 흡족해했다. 사실 수비 뿐만이 아니다. 타격에서도 9번타자 혹은 1~2번 타자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우승도 공포의 9번 리딩히터 김선빈이 뇌관 노릇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테이블세터진에서도 활약할 수 있어 공수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FA 자격을 얻으니 의욕도 넘다르다. 오키나와에서 김선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토티넘, 손흥민 인터뷰 홈페이지 게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티넘 홋스퍼의 손흥민(27)이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토티넘은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손흥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손흥민은 “우리 팬들은 늘 우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준다. 나 또한 미안하지”라면서 “내가 잘하지 못할 때도 최대한 팬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내가 항상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내 주변사람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손흥민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 네 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영양가도 만점이다. 지난 2일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후반 막판 결승골을 터뜨렸고, 14일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안 베르통의 크로스를 받아 팀의 3-0 승리에 디딤돌을 놓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벨레 알리, 해리 케인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팀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이러한 활약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우수선수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주간 네 경기를 몰아 뺀 그는 10일간의 휴식을 보내고 있다. 23일 번리와 EPL 27라운드 원정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대은, 첫 실전투구 147km... “밸런스과 구위 괜찮다”

“다음 등판에서는 더 자신감있게 던질 수 있어”

KT 위즈의 기대주 이대은(30)이 스프링캠프 평가전에 선발 등판했다. 이대은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루산 키노 베테랑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평가전에서 1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실점은 했지만 직구(18개)와 슬라이더(4개), 포크볼(2개), 커브(1개), 체인지업(1개) 등을 섞어 던지며 최고 구속 147km를 찍었다. 선두타자 최승민을 2루수 땅볼로 잡아낸 그는 감때진에 볼넷을 내줬다. 이어 양의지에게 안타를 맞은 뒤 수비 실책까지 더해져 1사 1·3루에 물렸고, 베타코트에 게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맞아 실점했다. 하지만 강진성을 삼진 처리하며 추가실점 없이 이닝을 마

쳤다. 이대은은 “첫 등판이어서 처음에는 긴장을 했지만, 밸런스와 구위가 괜찮았다”고 자평했다. “다음 등판에서는 더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대은은 신일고 재학 중이던 2007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며 통산 135경기 40승37패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했다. 빅리그를 밟지 못한 그는 일본으로 가 2015~2016년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40경기 9승9패 평균자책점 3.97을 거뒀다. 허약한 마운드로 어려움을 겪은 KT는 검증된 신인 이대은이 선발로 합류하면서 투수진 강화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양팀의 합의 하에 12회가



지진 행된 이 날 경기 17-17 무승부로 끝이 났다. KT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주권은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2019시즌 신인 이상동과 손동현도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KT 타선에서는 이해창이 7회와 9회 안타씩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해창은 “코치님들과 함께 타격 폼을 수정했는데, 준비한 대로 실전에서 좋은 타구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김호곤, 축구계 컴백 수원FC 단장 선정돼

김호곤(68)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K리그 수원FC 단장을 통해 축구계로 돌아온다. 수원FC는 김 전 부회장을 단장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사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11월 ‘히딩크 파동’으로 축구협회 부회장과 기술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려놓은 김 전 부회장은 수원FC의 단장으로 새로운 축구 인생을 걸게 됐다. 김 전 부회장은 동래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선수 은퇴 후 1983년 현대호텔이축구단 코치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부산아이콘스·울산현대축구단 감독을 역임했다. 1986 멕시코월드컵,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대표팀 코치, 2004 아테네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으로 지도력을 입증했고, 축구협회 전무이사·성인리그 운영 담당 부회장·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축구 행정가로도 활동했다. 선수·지도자·행정가 이력을 모두 갖춘,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자테니스 세계1위 오사카, 1회전 탈락

여자 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 오사카 나옴이(22·일본)가 호주오픈 우승 이후 첫 경기에서 패했다. 오사카는 2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WTA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총상금 282만8000달러) 32강에서 세계랭킹 67위 크리스티나 블라데노비치(26·프랑스)에게 0-2(3-6 3-6)로 완패했다. 오사카는 여자 테니스 최강자다. 지난해 9월 US오픈에 이어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도 우승했다. 두 개의 메이저 대회를 거머쥐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그러나 호주오픈이 끝난 뒤 풍파

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자사 바인 코치와 결별했고 이번 두바이 대회에는 등 부상이 채 낫기도 전에 출전했다. 이 탓에 오사카는 25개의 실수를 범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으로 1시간 만에 대회에서 지취를 감졌다. 오사카는 경기 후 일본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는 진심으로 심각했다. 사실 최근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기에 들어가면 관망하지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도 “남은 시즌 쪽 이기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아직 젊다. 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다음 대회가 어떻게 기대할 뿐”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